



길목교회
THEWAYNEWS

주후 2023.11.25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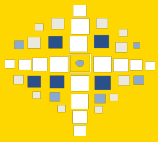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예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히브리서 11장〉..... 다같이

(인도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도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도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성도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인도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거를 얻었으니

(성도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인도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인도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민수기 1:1-4〉**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황예찬 전도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게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4



[민 1:1-4]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문과 집안별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수를 세어, 모든 남자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너와 아론은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민 1:1-4]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4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말씀묵상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듣기



감사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Words and Music by Henry Smith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나

의 맘과 뜻 다해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내

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 할 때 우리

를 부요케 하 신나의 주 감 - 사 감사 -



▶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며

유난히 습하고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사상 유례없이 길었던 추석연휴를 지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들 모두 평안하셨지요? 지난 추석명절에 많은 분들이 타국에서 맞는 명절에 저희가 쓸쓸할까 염려하며 안부를 물어 주셨는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쉽긴 했지만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며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선임 선교사님들이 가까이 계셔서 동역의 즐거움과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후임인 저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쿠미대학교 소식

우간다는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고, 신입생의 대다수가 가을학기에 입학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입학신청서가 많이 몰렸고,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서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천명에 가까운 학

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에 7~8백명의 재학생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가 늘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안정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 교실이 부족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부족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부족한 교실을 당장 확보할 수 없어 천막교실을 임시로 가동하고 있고, 교수들도 임용하기 위해 광고를 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임용이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학생들을 위한 시설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도제목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여학생 기숙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에 기숙사를 더 지어야 하는데 많은 돈이 준비되어야 하고, 시간도 필요해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안전, 도난, 사고 등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시점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한국인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가정이 안식년을 갖게 되면서 현재 한국인 사역자 3가정이 일을 나눠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가정, 여섯 명의 모든 사역자가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지만 일이 버겁습니다.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적어도 두 가정 이상 합류하여 동역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편지는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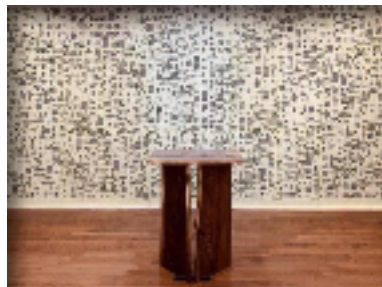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황예찬 전도사 사임

우리 교회에서 작년 5.22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황예찬 전도사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는 영은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전도사님의 새로운 사역과 학업을 위해, 또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역자 되도록 중보해주십시오.

교역자 리트릿

오늘 오후 모임을 마친 후 교역자 리트릿 시간을 가집니다.

담임목사 해외 사역 일정

11.28~12.17 터키, 이탈리아

11월4주 식사 섬김 감사

오늘 식사는 김점순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늘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한 일이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4주 식사섬김 신청받습니다.

1주 - 도시락/ 2주 - 라면/ 3주-밀키트/ 4주-성도참여/ 5주-랜덤

예배 권면 일정

12.3 - 전정민 전도사 권면

12.10 - 김명철 목사 권면